

JWT 토큰(Token) 기반 인증

JWT 토큰(Token) 기반 인증

JWT 소개 전에... 토큰이란?

과거의 인증시스템의 작동방식

JWT(JSON Web Token)

JWT 소개 전에... 토큰이란?

소개

API를 사용하는 웹서비스 개발시, 토큰을 사용하여 유저들의 인증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토큰기반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

Stateful Server : 클라이언트에게서 요청 받을 때마다,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정보를 서비스 제공에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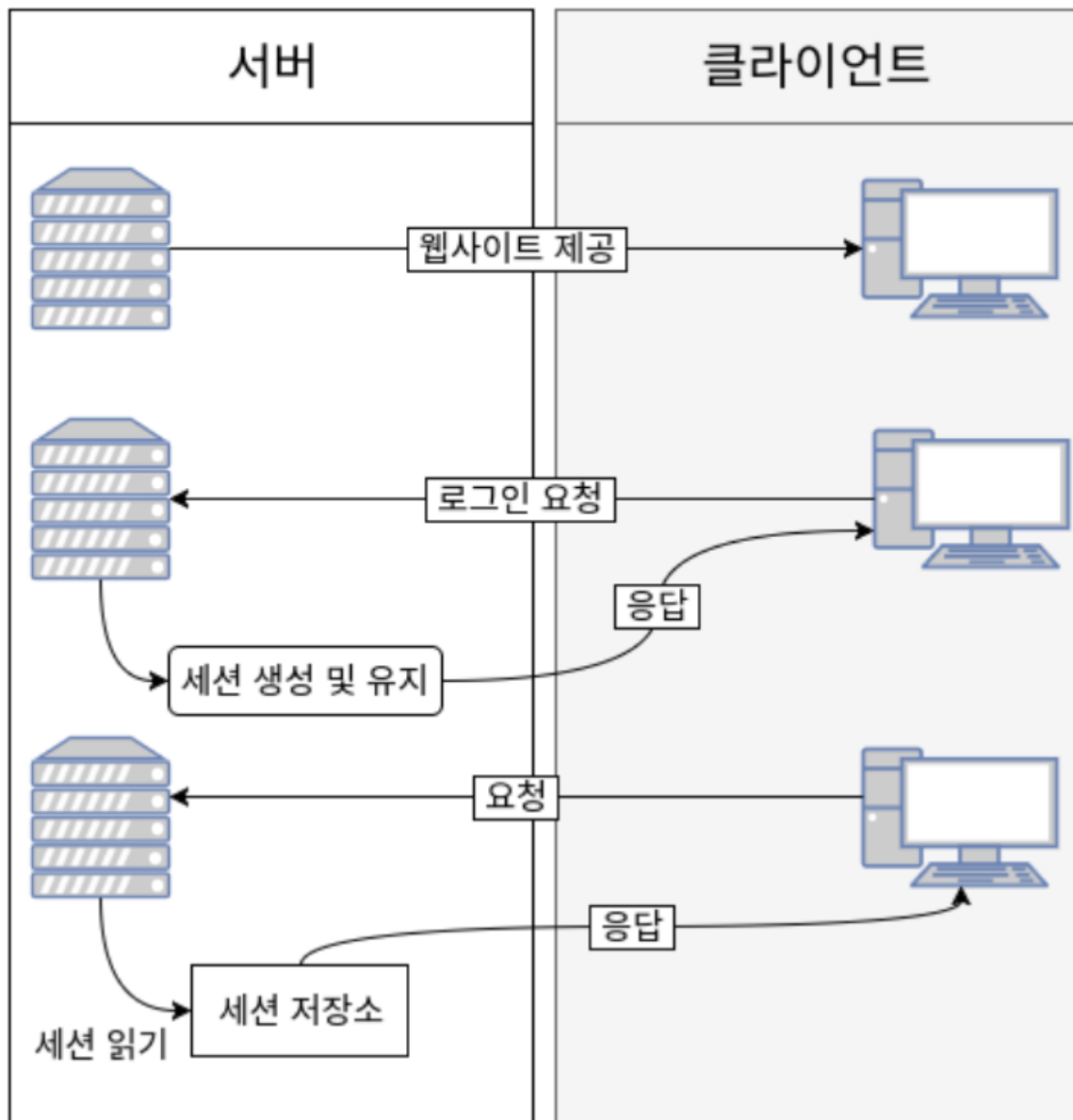
ex) 세션을 유지하는 웹 서버.

Stateless Server :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상태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측에서 들어오는 요청으로만 작업을 처리한다.

왜 토큰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과거의 인증시스템의 작동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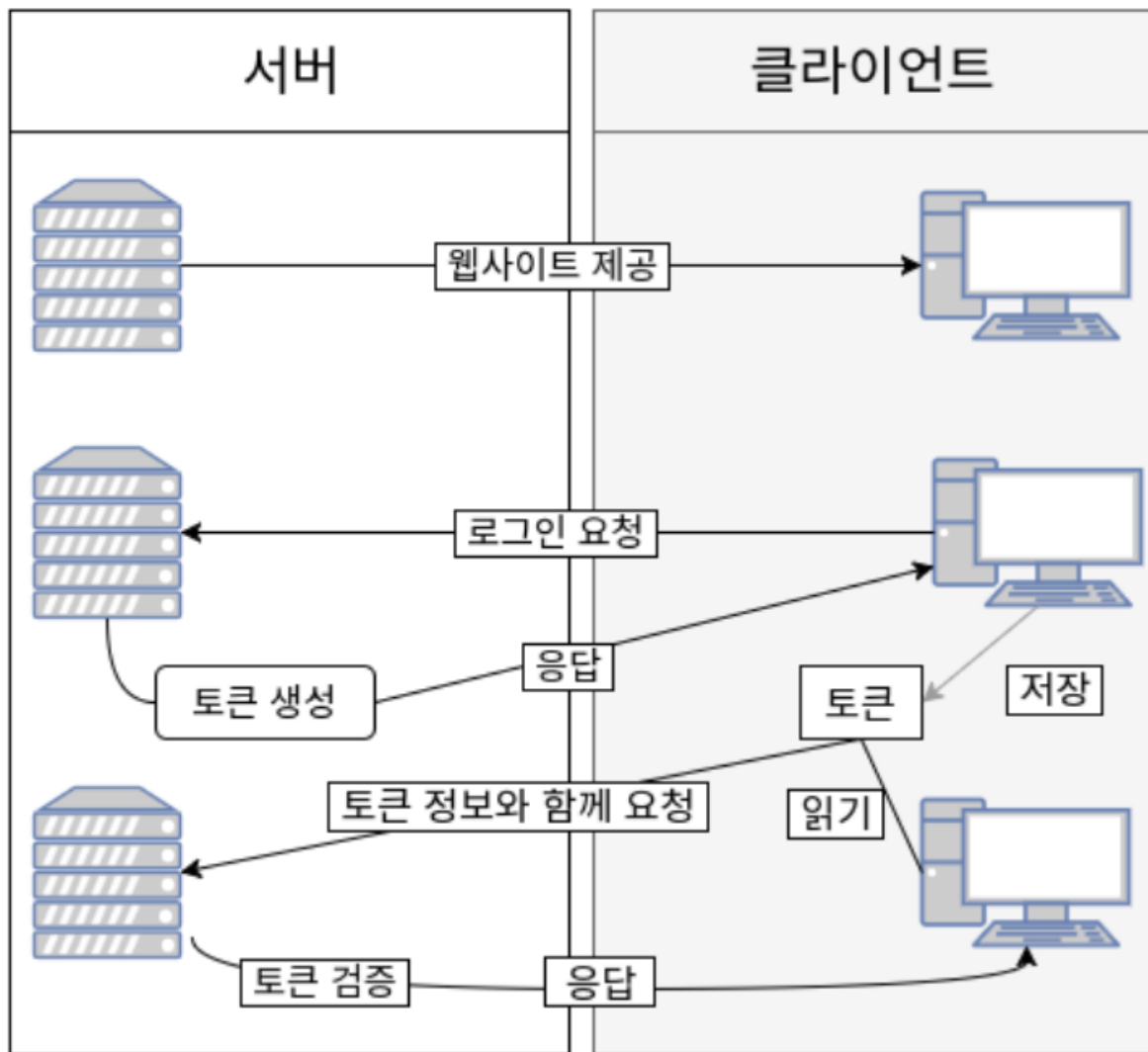
서버 기반 인증 : 서버를 확장하기가 어렵다.



- 유저의 수가 많으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무리가 된다.
- 확장성 : 세션 사용시 서버를 확장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 CORS(Cross-Origin Resource Sharing) : 쿠키는 단일 도메인 및 서브 도메인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있으므로 쿠키를 여러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다.

토큰 기반 시스템의 작동 원리

- 상태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유저의 인증정보를 서버나 세션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 세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들이 로그인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신경쓰지 않으면서 서버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서버측에서 해당 계정정보를 검증합니다.
3. 계정정보가 정확하다면, 서버측에서 유저에게 signed 토큰을 발급해줍니다. 여기서 signed 의 의미는 해당 토큰이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토큰임을 증명하는 signature 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4.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달받은 토큰을 저장해두고, 서버에 요청을 할 때 마다, 해당 토큰을 함께 서버에 전달합니다.(웹서버에서 토큰을 서버에 전달 할 때에는, HTTP 요청의 헤더에 토큰값을 포함시켜서 전달합니다.)
5. 서버는 토큰을 검증하고, 요청에 응답합니다.

토큰의 장점

1. 무상태(Stateless)
 - 토큰이 클라이언트사이드 저장되기 때문에
2. 확장성(Scalability)
 - 세션을 서버측에 저장하고 있고, 서버를 여러대를 사용하여 요청을 분산하였다면, 어떤 유저가 로그인 했을 때, 그 유저는 처음 로그인했었던 그 서버에만 요청을 보내도록 설정해야한다.
 - 하지만 토큰을 사용한다면, 어떤 서버로 요청이 들어갔던 동일한 토큰 검증과정을 거치므로 상관없다.
3. 보안성
 -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 시, 더 이상 쿠키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쿠키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점이 사라진다.
4. 확장성(Extensibility)

- 로그인 정보가 사용되는 분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큰을 사용하여 다른 서비스에서도 권한을 공유할 수 있다. 토큰 기반 시스템에서는, 토큰에 선택적인 권한만 부여하여 발급할 수 있다.
-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프로필 정보를 가져오는 권한은 있지만,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JWT(JSON Web Token)

JWT란

토큰 기반 인증 시스템의 구현체이다.

특징

1. JSON 객체를 사용하여 가볍고 자가수용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안정성있게 전달해줍니다.
2. 주류 프로그래밍 언어(C, JAVA, PYTHON, C++, PHP, JS, ...) 등 대부분 지원된다.
3. 자가 수용적이다.
 -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다.
 - 토큰에 대한 기본 정보
 - 전달 할 정보(유저 정보)
 - 검증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명(signature)
4. 쉽게 전달될 수 있다.
 - HTTP헤더에 넣어 전달
 - URL의 파라미터에 넣어 전달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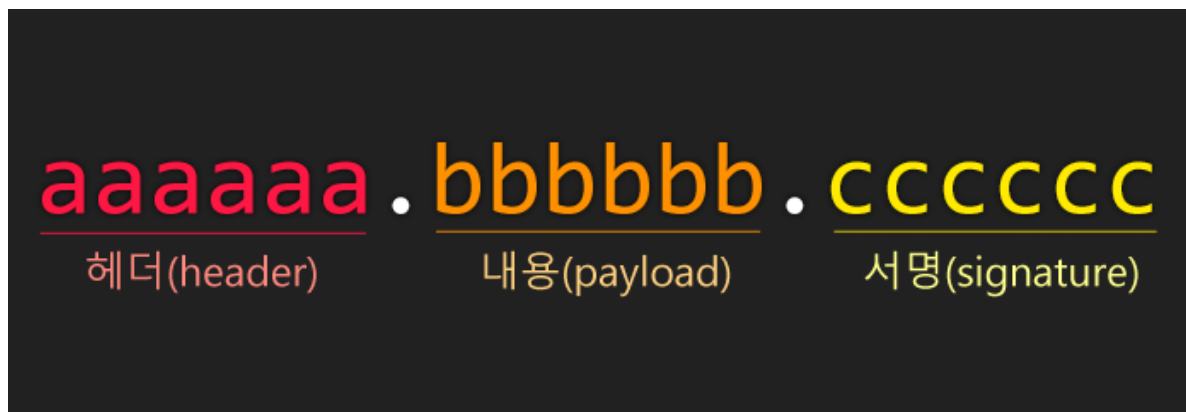
• 회원 인증

- 유저 로그인 - 서버는 유저 정보에 기반한 토큰을 발급하여 유저에게 전달
- 그 후, 유저가 서버에 요청시마다 JWT를 포함하여 전달
-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요청 받을 때마다, 해당 토큰이 유효한지, 인증된 토큰인지 검증
- 유저가 요청한 작업에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 작업을 처리한다.

• 정보 교류

- 두 개체 사이에서 안정성있게 정보를 교환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 정보가 sign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를 보낸이가 바뀌진 않았는지, 또 정보가 도중에 조작되지는 않았는지 검증가능하다.

생김새



1. 헤더(header)

- typ:토큰의 타입 지정 `JWT`
- alg:해싱 알고리즘 지정 `sha256`, `RSA`

```
# Node.js에서의 인코딩
const header = {
  "typ": "JWT",
  "alg": "HS256"
};

// encode to base64
const encodedPayload = new Buffer(JSON.stringify(payload))
  .toString('base64')
  .replace('=', '');
console.log('payload: ', encodedPayload);

/* Result:
header: 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
*/
```

2. 정보(payload)

- payload 부분에는 토큰에 담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담은 정보의 한 '조각'을 **클레임 (claim)** 이라고 부르고, 이는 **name/value**의 한 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토큰에는 여러개의 클레임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클레임

- **등록된 클레임** : 토큰 정보를 위한 이름이 정해진 클레임

`iss` : 토큰 발급자 (issuer)

`sub` : 토큰 제목 (subject)

`aud` : 토큰 대상자 (audience)

`exp` : 토큰의 만료시간 (expiraton), 시간은 `NumericDate` 형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예: 1480849147370) 언제나 현재 시간보다 이후로 설정되어있어야합니다.

`nbf` : Not Before 를 의미하며, 토큰의 활성 날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에도 `NumericDate` 형식으로 날짜를 지정하며, 이 날짜가 지나기 전까지는 토큰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iat` : 토큰이 발급된 시간 (issued at), 이 값을 사용하여 토큰의 `age` 가 얼마나 되었는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jti` : JWT의 고유 식별자로서, 주로 중복적인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일회용 토큰에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 **공개 클레임** : 충돌 방지를 위해 URL 형식으로 된 클레임 사용하기

- **비공개 클레임** : 클라이언트와 서버 협의 하에 사용되는 비공개 클레임. 충돌에 유의하여 사용

으로 구분가능합니다.

```
const payload = {
  "iss": "velopert.com", // 등록된 클레임
  "exp": "1485270000000", // 등록된 클레임
  "https://velopert.com/jwt_claims/is_admin": true, // 공개 클레임
  "userId": "11028373727102", // 비공개 클레임
}
```

```
// 비공개 클레임
"username": "v!loper!"
};

// encode to base64
const encodedPayload = new Buffer(JSON.stringify(payload))
    .toString('base64')
    .replace('=','');

console.log('payload: ',encodedPayload);

/* result
payload:
eyJpc3MiOiJ2ZWxvcGvydC5jb20iLCJleHAiOiIxNDg1MjcwMDAwMDAwIiwiaHR0cHM6Ly92ZWxvcGvydC5jb20vand0X2NsYWlscy9pc19hZG1pbGl6dHJlZSwidXNlcjlkIjoimTEwMjgzNmZM3MjcXMDIiLCJlc2VybmFtZSI6InZlbG9wZXJ0In0
*/
```

3. 서명(Signature)

- 헤더의 인코딩값, payload의 인코딩값을 합친 후(.을 넣어줍니다) 비밀키로 다시 해쉬하여 생성한다.

```
// 수도코드
HMACSHA256(
    base64UrlEncode(header) + "." +
    base64UrlEncode(payload),
    secret)
```

```
const crypto = require('crypto');
const signature = crypto.createHmac('sha256', 'secret')
    .update(encodedHeader + '.' + encodedPayload)
    .digest('base64')
    .replace('=','');

console.log('signature: ',signature);

/* result
Signature:  WE5fMuFM0NDSVGJ8cAo1XGkyB5RmYwCto1pQWDIqo2w
*/
```

4. 결과

- 지금까지 구한 값들을 **·**를 중간자로 다 합쳐주면, 하나의 토큰이 완성된다.

```
/* result  
result:  
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pc3MiOiJ2ZWxvcGVydC5jb20iLCJleH  
AioiOiXNdGlmjcwMDAwMDAwIiwiaHR0cHM6Ly92ZWxvcGVydC5jb20vYWVudDQwNnYwLWtscy9pc  
19hZG1pbmI6dHJlZSwidXNlcikIjoimTEwMjgzNmMjcXMDIiLCJ1c2VybmFtZSI6InZl  
bg9wZXJ0In0.WE5fMuFM0NSVGJ8cAoIXGkyB5RmYwCto1pQWDIqo2w  
*/
```

5. 실습 결과 : <https://jwt.io/>

- 참고 자료 :

- 이론 - <https://velopert.com/2389>
- 실습 - <https://alwayspr.tistory.com/8>